

**원픽**

one pick:  
내가 최고로 뽑은 것!

**| 고등 국어 |**

언어와 매체

# 언어와 매체

# 신수능 전략

수능 국어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영역별로 달라야 하는 언어와 매체 공부!

## 언어와 매체!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학습 방법을 찾으면 될까?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을 생각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 및 <보기>,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팩트 체크!

- ☑ 언어 : 매체 = 5.5 : 5.5
  - 수능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는 총 11문제가 출제됨.
  - 외형상 '언어' 5문제, '매체' 6문제이지만, '매체' 중 한 문제는 매체 언어의 문법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 즉 '언어'와 '매체'의 융합 문제로 출제됨.
- ☑ '언어'의 세트형 문제 유지
  - '언어' 총 5문제는 세트형 문제 2개와 단독 문제 3개로 구성됨.
  - 세트형 문제의 지문은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심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가미하거나 단원끼리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
- ☑ 뉴 미디어 중심의 '매체' 자료 제시
  -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자료로 삼아 실생활과 연관 짓는 문제가 많음.
  - 인쇄 매체나 음성·영상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뉴 미디어의 정보와 언어가 지닌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됨.

[35~36] 다음 글을 읽고 문맥에 답하십시오.

두 이상의 단원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위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이단'의 결합 방식과 '이단'의 위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단'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방식이든 통사의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들 사람의 유일한 공통 언어'는 '이들'과 '사람'의 결합이 통사적 결합인 것, '공통'이 결합시행이 행위를 수식하는 것, '언어'가 목적어 뒤에 사용어가 결합하는 것, '단어'나 '문법'과 '매체'를 수식하는 것, '우리가 통탄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2022 예시 문항 35~36번 지문]



[2022 예시 문항 40~42번 자료]

### 전략 체크!

- ☑ '언어'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
  - <음운>, <단어>, <문장> 단원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 두어야 하며,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함.
- ☑ '언어'의 심화 학습
  - 지문이 제시되는 세트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단원의 기본 개념보다 어려운 심화 개념, 즉 예외적 사항, 세밀한 분류, 다른 관점의 해석 등에 대해서도 공부해 두는 것이 유리함.
  - 복수의 단원에서 연관될 수 있는 개념들을 엮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음.
  - 예 <단어> 단원의 선어말 어미, <문장> 단원의 높임법, <국어사> 단원의 중세 국어 높임 표현 등을 엮어 봄.
- ☑ 실생활 속의 뉴 미디어에 대한 학습
  - '매체' 영역에서 문제에 주로 활용되는 뉴 미디어의 특성을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매개로 정리해 두어야 함.
  - 뉴 미디어 자료의 내용이나 표현에 담긴 생산 주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함.



# 언어와 매체 사용 설명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언어와 매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교재 구성

### 학습 순서 예시

본책(문제)	정답과 해설
<p>내신과 수능의 완벽한 준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 개념과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li> <li>내신, 수능 및 모의고사의 출제 코드 반영</li> <li>최신 출제 패턴 분석을 통한 대표 유형과 신유형 수록</li> </ul>	<p>정확하고 상세한 문제 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정답 해설, 필요한 오답 분석</li> <li>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는 명쾌한 해설</li> </ul>
<p>① 학습 계획표 작성                  ② '개념 MAP' 확인                  ③ '개념 정리' 학습                  ④ '내신 대비 문제' 학습                  ⑤ '수능 대비 문제' 학습                  ⑥ '빈출 개념 총정리' 학습</p> <p>⑦ 정·오답 분석 확인</p>	

## 우리 교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언어  
 문법  
 매체

▲ 문법/매체 개념 MAP

· '언어와 매체' 과목을 학습하기 전에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중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도록 각 단원의 전체 열개를 친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단어의 품사와 특성

품사	기능	예시
명사	제언	사람
	수식어	학생
	주어	학생이
동사	수식어	말하다
	목적어	말하다
	어미	말하다
관사	수식어	이것
	주어	이것이
대명사	수식어	저
	주어	저가
부사	수식어	매우
	어미	매우

▲ 개념 정리

·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단원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개념 및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 단 부위와 (2)의 단어를 해당하여 짝짓기 문제

가. 밑줄 친 단어를 (2)의 단어를 해당하여 짝짓기 문제

가. 밑줄 친 단어를 (2)의 단어를 해당하여 짝짓기 문제

▲ 내신/수능 대비 문제

· 앞서 설명한 개념 및 이론에서 출제 코드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핵심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실전 대비 평가'까지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빈출 개념 총정리

빈출 개념: 빈출어휘, 빈출어휘, 빈출어휘

빈출 개념: 빈출어휘, 빈출어휘, 빈출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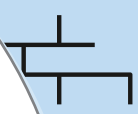
▲ 빈출 개념 총정리

· 기출문제를 통해 빈출 개념을 총정리하면서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기/선지 분석>으로 빈출 유형별 문제 접근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례

차례





- **계획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일정 수립하기
- **학습일** 실제로 공부한 날 적기

## 제1부 언어

				계획일	학습일
<b>언어와 국어</b>	01	언어와 국어	9	/	/
<b>음운</b>	02	음운의 체계	15	/	/
	03	음운의 변동	18	/	/
<b>단어</b>	04	단어의 품사와 특성	31	/	/
	05	단어의 짜임	35	/	/
	06	단어의 의미 관계	38	/	/
<b>문장</b>	07	문장 성분	50	/	/
	08	문장의 짜임	53	/	/
	09	문법 요소	56	/	/
<b>담화</b>	10	담화	72	/	/
<b>국어사</b>	11	국어사	79	/	/
<b>국어의 규범</b>	12	국어의 규범	92	/	/
탐나는 신유형			101	/	/

## 제2부 매체

				계획일	학습일
	01	매체와 매체 언어	109	/	/
	02	매체 언어의 특성	114	/	/
	03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119	/	/
	04	생활 속의 매체	124	/	/
대표 유형 완전 분석			129	/	/
탐나는 신유형			134	/	/



#### 출제 경향

- ‘언어’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 제시한 후, 선지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유형이다. 둘째는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문법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서의 선지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라는 유형이다. 따라서 ‘언어’ 분야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개념 학습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 ‘언어’에서 유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은 세트형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세트형 문제란 문법의 다양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지문을 먼저 주고, 그에 결부된 문제 두 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때문에 고득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문법 개념을 탄탄하게 다짐으로써, 지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굳이 읽어 보지 않아도 되는 실력을 쌓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지문에 특별히 추가된 심화 개념만을 빠르게 점검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1 부 언어

언어와 국어

01 언어와 국어

음운

02 음운의 체계

03 음운의 변동

단어

04 단어의 품사와 특성

05 단어의 짜임

06 단어의 의미 관계

문장

07 문장 성분

08 문장의 짜임

09 문법 요소

담화

10 담화

국어사

11 국어사

국어의 규범

12 국어의 규범

탐나는 신유형

출제자가 알려 주는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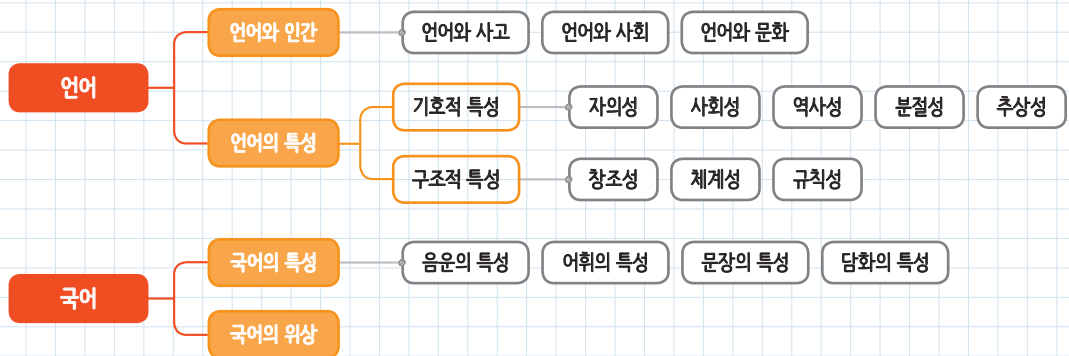
## 문법 개념 MAP

# 언어와 국어

<언어와 국어> 단원은 말 그대로 언어와 국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고, 인간의 사고 및 사회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는 언어의 보편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럴 거야. 매일 언어,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중에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이 단원과 관련하여 수능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줄기나 잎, 꽃과 열매만으로 나무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지.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존재하게 하는 뿌리를 알아야 나무의 다른 부분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언어와 국어의 특징을 알아야 국어의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자 이 단원을 학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니?

이 단원의 전체 열개는 다음과 같아.



이 단원은 크게 '언어'와 '국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언어'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공부할 거야.

'국어'에서는 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야. 자세한 국어 문법은 뒤에 이어질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자.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 언어와 국어

**출제 코드**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언어의 기호적 특성, 언어의 구조적 특성, 국어의 특성, 국어의 위상

## 1. 언어와 인간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함. 또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1)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고, 그로 인해 언어 능력의 수준도 높아짐.

언어 →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궁극적으로 사고 영역을 넓게 함.</li> <li>언어는 사고의 전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의 논리성과 조직성을 높이는 기능을 함.</li> </ul>
사고 →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는 특정 언어 표현을 제한하기도 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함.</li> <li>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함.</li> </ul>

### (2) 언어와 사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감.

언어 =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은 공동체 의식을 공유함.</li> <li>같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같은 말을 사용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됨.</li> </ul>
---------	--

언어는 지역,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나타남.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예 표준어 '팽이'는 지역에 따라 '페이'(강원), '핑깡이'(경북), '팽데기'(경남), '도로기'(제주), '뽕도리'(전북), '팽구래미'(충북), '세루'(평북), '뽕애'(함남) 등으로 불림.	예 의사가 환자의 병명이 '엘포-파이브-에스원 사이 디스크 에이치엔피'라고 하였는데, 환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함.

### (3) 언어와 문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언어는 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이 있음.

언어 = 문화	<p>우리 민족의 문화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농경 문화와 관련된 언어가 발달되어 있음.</p> <p>예 한국어: '쌀'-'벼'-'모'-'밥' / 영어: 'rice'</p>
---------	--

## 2. 언어의 특성

### (1) 언어의 기호적 특성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기호라고 함.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호에 해당함.

### 개념 플러스

####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홀볼트	인간은 본질적으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피어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워프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만들어 낸다.

####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지역 방언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언어가 변하는 것
사회 방언	방언 분화가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집단, 즉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된 말

#### 언어가 변하는 이유

-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겨남에 따라 그 말을 나타내는 말이 발생한 경우
  - 예 우주선, 로봇, 밌 등
- 과거에 있던 대상이나 개념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사라진 경우
  - 예 어사, 포졸, 궁녀 등
-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두 말이 경쟁하다 하나만 쓰이고 나머지는 쓰이지 않게 된 경우
  - 예 미르-용(龍), 즈문-천(千)

자의성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사회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 내에 일정한 약속이 있어야 함. 따라서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음.
역사성	언어는 근본적으로 자의성을 지니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속이 달라져 언어가 변하기도 함.
분절성	언어는 연속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분절적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음. 따라서 말소리와 의미 모두 일정한 단위로 분절하여 인식함.
추상성	언어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기 때문에 언어는 대상들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함.

## (2) 언어의 구조적 특성

창조성	인간이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한정된 수의 기호로 무수히 많은 표현을 생산해 낼 수 있음.
체계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규칙성	언어는 문법 단위들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이 적용됨.

## 3. 국어의 특성

### (1) 음운의 특성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음.

### (2) 어휘의 특성

- 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짐.
- ②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함.
- ③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함.
- ④ 친족어와 호칭어들이 세분화되어 있음.

### (3) 문장의 특성

- 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 높임 표현이 발달함.
- ②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짐.

### (4) 담화의 특성

- ① 담화 상황에 따라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 ②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음.

## 4. 국어의 위상

한국어는 7천여 개에 달하는 현존하는 언어 중 사용 인구 기준 13위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등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물질,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 언어가 분절되어 쓰이는 경우

문법 단위적 분절	나무: 나/무(음절 단위), ㄴ/ㅌ/ㅍ/ㅊ(음운 단위)
의미적 분절	무지개의 색깔: 빨강 / 주황 / 노랑 / 초록 / 파 랑 / 남색 / 보라

### • 구조적 특성들의 관계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 단위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는 체계성을 토대로 구현되는 것이며,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할 때 유한한 기호로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는 창조성이 이루어짐.

### • 한국어와 영어의 특성 비교

-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데, 영어의 자음 체계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됨.
-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지지만, 영어는 고유어와 외래어의 이분 체계를 가짐.
-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지만, 영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임.

# 내신 대비 문제

## 개념 확인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
- ①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 )
  - ② 언어의 역사성이란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약속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 )
- 알맞은 내용에 ○표를 하시오.
- ③ 언어는 연속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 / 추상성)이라고 한다.
  - ④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다는 (어휘적 / 문법적) 특성이 있다.

정답: ① ○ ② × ③ 분절성 ④ 어휘적

## 1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이 함께 발달하는 것으로 볼 때, 언어와 사고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 ㄴ.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종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분화된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 ㄷ.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 ㄹ.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 ㅁ. 언어는 기존의 문화를 보존·계승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하기도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 2 <보기>와 관련한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 '개'를 국어로는 '개'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dog'라고 표현하고, 중국어로는 '犬'으로 표현한다.

- ① 자의성      ② 체계성      ③ 역사성
- ④ 분절성      ⑤ 추상성

## 3 언어의 특성에 대한 <보기>의 대화 중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국어에서 '빵이 먹었다'는 문법에 맞지 않지만, '빵을 먹었다'는 문법에 맞는 표현이야. 이는 언어의 '규칙성'과 관련이 있어.
- ㄴ.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리다'는 지금과 달리 '어리석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어. 이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어.
- ㄷ. 아이가 '밥'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말을 배운 후, '밥을 떡'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었어. 이는 언어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어.
- ㄹ. '무지개'를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구름'이라고 했더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 이는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이 있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ㅁ

## 4 <보기>에서 국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지니고 있다.
- ㄴ. 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진 체계를 지니고 있다.
- ㄷ. 국어는 다른 말에 비해 호칭어는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높임 표현을 발달되어 있다.
- ㄹ. 국어는 다른 말에 비해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 수능 대비 문제

## 기술 대표 문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 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을 지시하는 내용 사이의 결합의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간혹 **㉠**의성어의 경우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필연성은 없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개가 짚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어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각한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이 꼭 그래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의 울음을 국어에서는 ‘음매’라고 발음하지만, 소는 그 소리대로 울지 않는다. ‘음매’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하겠다.

**다**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연결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은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다.

의사 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니까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수용된 약속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라**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마**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질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轉位)라고 한다.

**1** 뒷글로 볼 때, (다)의 특질이 생기는 이유는?

- ① 인간 언어에 보편성이 있어서
- ②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달라서
- ③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 체계가 있어서
- ④ 인종마다 청각 기관의 구조가 달라서
- ⑤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어서

**중요**

**2**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하고 싶은 바를 춤으로 표현한다.
- ②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외워서 낭송한다.
- ③ 인간과 벌 사이의 의사 소통 수단을 고안한다.
- ④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 ⑤ 영어를 잘하기 위해 국어의 /ㅅ/를 /Z/로 발음한다.

**3** ㉠에 대해 ‘소의 울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어마다 다르다.
- ② 소의 실제 울음은 ‘음매’라는 발음과 똑같지 않다.
- ③ 소의 울음은 ‘음매’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④ 소의 울음을 ‘음매, 엄매’ 등으로 달리 발음할 수 있다.
- ⑤ 소의 울음을 ‘음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가 그렇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4**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함께 갑시다.
- ② 골고루 먹어라.
- ③ 비가 오는구나!
- ④ 이게 뭐지 알아?
- ⑤ 책은 안방에 있어.

### 실전 대비 평가

#### 1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기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대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가족 구성원의 위계나 질서를 중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어에는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를 구분하는 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위계나 질서를 중시하지 않는 영어권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uncle'이라고 했다.

- 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언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④ 언어는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말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 ⑤ 언어는 한정된 수의 단어로 무수히 많은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중요

#### 2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나는 어제 집에 가겠다.'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다.
- ㉡ 중세에서는 '얼굴'이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 얼굴에서 '이마, 뺨, 턱'의 경계를 정확하게 짚기가 어렵다.
- ㉣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 '판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 ㉤ 생김새가 제각각인 고양이 개체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고양이'라고 부른다.

- ① ㉠: 언어는 문법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 ② ㉡: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 ③ ㉢: 언어는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④ ㉣: 언어는 연속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분절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이다.

#### 3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다음 세 자료를 모두 고려할 때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을 말해 볼까요?

- ㉠ '배'는 소리는 같지만, 문장에 따라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배나무의 열매',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 ㉡ '양반'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을 이르는 말로 쓰였지만, 지금은 자기 남편을 남에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
- ㉢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을 한국어로는 '나무[namu]'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ree[tri]', 중국어로는 '木[Mù]'라 한다.

학생: [A]

- ①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 ②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말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 ④ 한정된 수의 기호로 많은 표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⑤ 대상들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합니다.

#### 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학생 1: 이번에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타임캡슐(time capsule)'을 다듬은 말로 '기억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는 이 말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더라.

학생 2: 그런데 '기억상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이 말은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런 점에서 위원회에서 당부한 것은 언어의 ( ㉠ )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

학생 1: 맞아. 그런데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온 '타임캡슐'을 '기억상자'라는 신조어로 완전히 대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렇지만 언어에는 ( ㉡ )이라는 특성이 있으니 우리가 노력한다면 '타임캡슐' 대신 '기억상자'만 쓰이는 날이 반드시 오겠지.

- |       |     |       |     |
|-------|-----|-------|-----|
| ㉠     | ㉡   | ㉠     | ㉡   |
| ① 역사성 | 창조성 | ② 사회성 | 역사성 |
| ③ 사회성 | 분절성 | ④ 분절성 | 추상성 |
| ⑤ 규칙성 | 체계성 |       |     |

출제자가 알려 주는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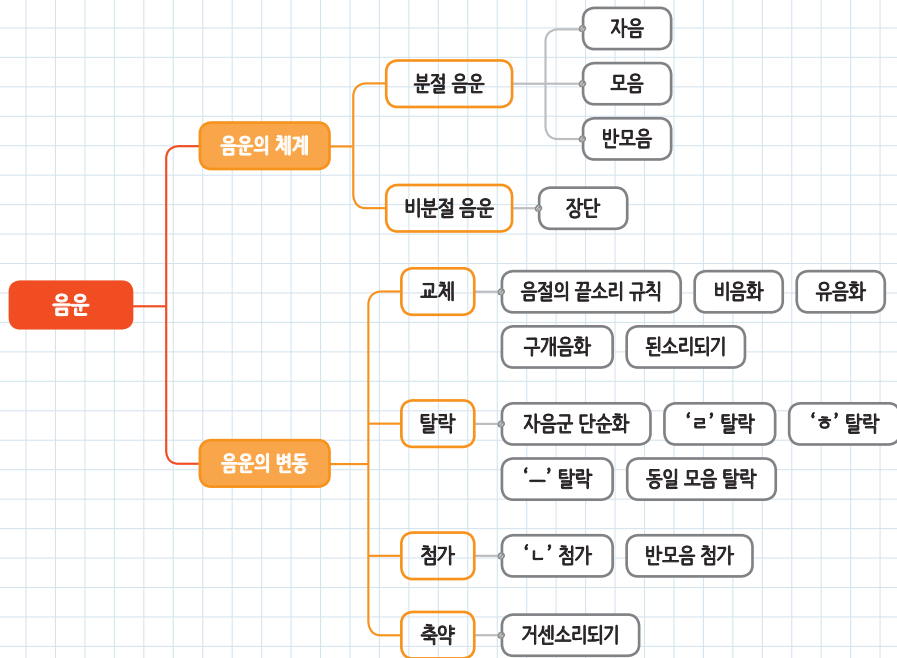
## 문법 개념 MAP

# 음운

<음운> 단원의 학습을 왜 해야 할까? 어린 시절에 블록 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 블록을 조립하여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성 모양이나 자동차 모양을 만들려면 어떤 블록들을 사용할지 정해야 했어. 즉 블록의 특성을 알아야 제작 시간도 단축되고, 원하던 모양을 정확히 만들 수 있었지.

음운도 일종의 블록이라 할 수 있어. 말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바로 음운인 거야.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에 쓰이는 음운의 특성에 대해 배우게 될 거야. 나아가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 음운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거야.

그럼 이 단원의 전체 열개를 살펴볼까?



위의 열개처럼 이 단원은 크게 '음운 체계'와 '음운의 변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부터 우리는 두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야.

'음운 체계'는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는데, 특히 분절 음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공부할 거야.

'음운의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을 공부할 거야.

자, 이제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



# 음운의 체계

**출제 코드** 최소 대립쌍, 음운, 음절, 자음 체계, 모음 체계

## 1. 음운의 개념과 종류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1) **분절 음운(=음소)**: 실질적인 소릿값이 나누어지는 음운(자음, 모음, 반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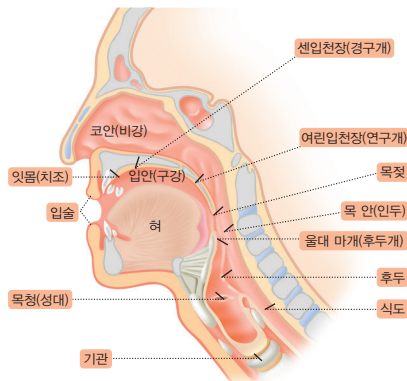
- 예 <초성> 불 / 풀 / 뿔 → 첫소리 'ㅂ, ㅍ, ㅃ'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중성> 발 / 벌 / 볼 / 불 → 가운데소리 'ㅌ, ㄷ, ㄱ, ㅍ'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종성> 발 / 밤 / 밥 / 방 / 발 → 끝소리 'ㄹ, ㅁ, ㅂ, ㅇ, ㅌ'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2) **비분절 음운(=운소)**: 실질적인 소릿값이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으로, 음소와 함께 실현 음향과 마찬가지로 분절되지 않지만 의미 변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음운으로 불림. (소리의 장단 등)

## 2. 자음 체계

자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입게 되어 만들어지는 소리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소리
			(양순음)	(치조음)	소리 (경구개음)	소리 (연구개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ㅉ		
		거센소리(격음)			ㅊ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발음 기관 단면도

### 개념 플러스

#### • 음성, 음운, 음절

음성	사람이 말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음운	공통적 요소만을 뽑아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음절	음운이 모여서 되는 최소 발음 단위

#### • 최소 대립쌍

단어를 이루는 음운들 중, 하나의 음운만이 달라서 그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  
 예 물-술, 배-벼, 사람-사랑

#### • 변이음

동일한 음운이라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날 수 있는데 이를 말함. 변이음은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함.

예 '바보'의 두 'ㅂ': 첫 번째 'ㅂ'은 무성음이고, 두 번째 'ㅂ'은 유성음으로 이 둘이 변이음임.

#### • 반모음(= 반자음)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음운으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함.

예 [j], [ɰ], [w]

#### • 음절의 종류

- 중성(모음): 예 아
- 중성(모음) + 중성(자음): 예 안
- 초성(자음) + 중성(모음): 예 가
- 초성(자음) + 중성(모음) + 중성(자음): 예 간

(1)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

입술소리(양순음)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잇몸소리(치조음)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혃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목청소리(후음)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파열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파찰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마찰음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비음	여린입천장과 목젓을 내려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혃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3. 모음 체계

모음은 날숨이 목청을 통과하면서 목청을 떨어 올리게 되면, 그것이 입안에서 공명을 일으켜 나는 소리로, 공기가 입 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임.

(1)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혃의 위치가 일정한 모음.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모두 10개임.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 입술 모양	혀의 최고점 위치		후설 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ㅑ	ㅕ	ㅓ	ㅗ
저모음	ㅓ		ㅑ	

(단,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ㄱ'과 'ㅕ'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2)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혃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모두 11개임.

반모음 'ㅣ' + 단모음	ㅑ, ㅕ, ㅓ, ㅗ, ㅓ, ㅑ
반모음 'ㅓ/ㅑ' + 단모음	ㅓ, ㅑ, ㅓ, ㅑ
단모음 + 반모음 'ㅣ'	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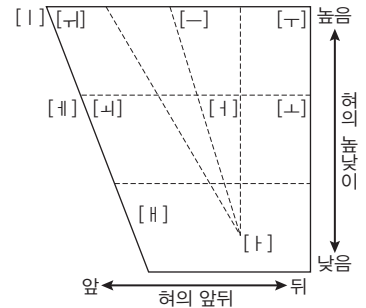
4. 비분절 음운(≡ 운소)

자음이나 모음에 얹혀 나타나 분리성이 희박하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임.

소리의 장단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달리하여 단어의 뜻을 구별함.
	예) 눈:[雪] / 눈[眼]      말:[言] / 말[馬, 斗]
	성:인[聖人] / 성인[成人]      무:력[武力] / 무력[無力]
	단,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단어의 첫째 음절이 아니면 짧아지는 경우가 많음.
	예) 함박 + 눈: → 함박눈      거:짓 + 말: → 거:짓말

• 모음 시각도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 안에서 혃의 최고점 위치를 간략히 도표화한 것임.



• 단모음의 분류 기준

• '혀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혃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혃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

고모음	입을 조금 열고, 혃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
중모음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혃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
저모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혃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 내신 대비 문제

## 개념 확인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
  -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구분한다. ( )
- 알맞은 내용에 ○표를 하시오.
- 실질적인 소릿값이 나누어지는 음운을 (분절 음운 /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 모음을 '저모음 - 중모음 - 고모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 / 입술 모양 / 혀의 높낮이)이다.

정답: ① ○ ② ○ ③ 분절 음운 ④ 혀의 높낮이

### 1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아리랑'은 모두 7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군.  
 ㄴ. 음운은 음성과 달리 구체적·물리적 소리이군.  
 ㄷ.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의 종류로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군.  
 ㄹ. '곰'과 '감'은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만, '곰'과 '강'은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 않는군.  
 ㅁ. '눈[눈](眼)'과 '눈[눈:](雪)'의 뜻이 구별되게 해 주는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의 예이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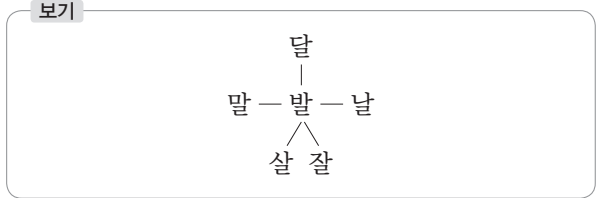
### 2 <보기>에 제시된 자음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ㄷ, ㅂ

-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이다.
-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발음 기관의 어딘가를 막아서 공기를 압축했다가 터뜨린 소리이다.
- 입 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공기가 마찰하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 3 <보기>의 단어는 초성이 달라 다른 뜻을 갖게 된 단어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발'과 '달'의 초성에 쓰인 자음은 조음 위치가 같다.
- '발'과 '말'의 초성에 쓰인 자음은 조음 위치가 같다.
- '발'과 '살'의 초성에 쓰인 자음은 조음 위치가 같다.
- '발'과 '잘'의 초성에 쓰인 자음은 조음 방법이 같다.
- '발'과 '날'의 초성에 쓰인 자음은 조음 방법이 같다.

### 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이 쓰인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소리 낼 때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음.
- 소리 낼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를 냄.
-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음.
- 소리 낼 때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음.

- ① 노    ② 위    ③ 죄    ④ 구    ⑤ 자

### 5 <보기>의 '학생 2'가 '학생 1'에게 조언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나는 평소 '개'와 '게'를 발음하는 게 어려워. 친구가 옆으로 걷는 걸 보고 '게' 같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  
 학생 2: 음, 그러면 이렇게 발음해 볼래? '개'를 발음할 때는 '게'를 발음할 때보다 ( ㉠ )

- ① 입술 모양을 되도록 평평하게 하여 발음해 봐.
- ② 입술 모양을 되도록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해 봐.
- ③ 입의 모양을 되도록 천천히 바꾸면서 발음해 봐.
- ④ 입을 크게 벌려 혀의 높이를 최대한 낮게 발음해 봐.
- ⑤ 입을 조금만 벌려 혀의 높이를 최대한 높게 발음해 봐.

# 03 음운의 변동

**출제 코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거센소리되기

##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종류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바뀌는 현상. 변동의 결과에 따라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됨.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ㄴ' 탈락, 동일 모음 탈락
첨가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ㄴ' 첨가, 반모음 첨가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거센소리되기

## 2. 교체(대치)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1) 음절의 끝소리 규칙(평파열음화)

우리말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로, 이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교체되어 발음됨.

음절의 끝소리	발음	예
ㄱ, ㅋ, ㆁ	ㄱ	백[백], 뉘[뉘], 부엌[부엌]
ㄴ	ㄴ	간[간]
ㄷ, ㅌ, ㅍ, ㅊ, ㅌ, ㅍ, ㅎ	ㄷ	날[날], 날[날], 낫[낫], 낫(다)[날], 낫[날], 낫[날], 낫(다)[날]
ㄹ	ㄹ	말[말]
ㅁ	ㅁ	감[감]
ㅂ, ㅃ	ㅂ	밥[밥], 앞[앞]
ㅇ	ㅇ	강[강]

- 단어 끝에 오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끝 자음을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함. 예) 옷이 → [오시], 꽃을 → [꼬출]
- 단어 끝에 오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하여 발음함. 예) 걸옷 → [거돋], 옷 안 → [오단]

### (2)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뀜.

- ① 파열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개념 플러스

### •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법 규정

음운 변동	관련 규정
음절의 끝소리 규칙	표준 발음법 제8~16항
비음화, 유음화	표준 발음법 제18~20항
구개음화	한글 맞춤법 제6항, 표준 발음법 제17항
된소리되기	한글 맞춤법 제5항, 표준 발음법 제23~28항, 30항
축약, 탈락	한글 맞춤법 제18항, 28항, 32~40항, 표준 발음법 제12항
첨가	표준 발음법 제29~30항

### • 연음

연음은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나는 것으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이 아니므로 음운의 변동으로 보지 않음.

### •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형태소로, 체언과 수식언, 용언의 어간이 이에 해당함.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 등이 이에 해당함.

ㄱ(ㄱ, ㅋ, ㆁ, ㄷ) + ㄴ, ㄹ → [ㅇ] + ㄴ, ㄹ	예) 먹는다 → [멍는다], 국물 → [궁물], 뒹는 → [닥는] → [당는]
ㄷ(ㄷ, ㅌ, ㅊ, ㅌ, ㅍ, ㅎ) + ㄴ, ㄹ → [ㄴ] + ㄴ, ㄹ	예) 달는다 → [단는다], 맡여느리 → [만여느리], 웃맵시 → [온맵시] → [온맵시]
ㅂ(ㅂ, ㅃ, ㅍ, ㅍ) + ㄴ, ㄹ → [ㅁ] + ㄴ, ㄹ	예) 잡는다 → [잠는다], 밥물 → [밤물], 밟는 → [밥:는] → [밤:는]

② ‘ㄹ’의 비음화: 유음 ‘ㄹ’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

예) 종로 → [종노], 함양 → [함냥], 백로 → [백노] → [뱅노]

### (3)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순행적 유음화	예) 달님 → [달림], 칼날 → [칼랄]
역행적 유음화	예) 권력 → [궐력], 신라 → [실라]

### (4) 구개음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섣입천장소리(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ㄷ + ㅣ → [ㅈ] + ㅣ	예) 굳이 → [구지], 해돋이 → [해도지]
ㅌ + ㅣ → [ㅊ] + ㅣ	예) 같이 → [가치], 불이다 → [부치다]

단,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에는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5) 된소리되기(경음화)

‘ㄱ, ㄷ, ㅂ, ㅈ, ㅊ’과 같은 예사소리(평음)가 ‘ㄱ, ㄷ, ㅂ, ㅈ, ㅊ’과 같은 된소리(경음)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받침 ‘ㄱ, ㄷ, ㅂ’ 뒤에 오는 자음의 경음화	예) 국밥 → [궡밥], 민다 → [민따], 입술 → [입쑤]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오는 자음의 경음화	예) 신고 → [신:꼬], 더듬지 → [더듬찌]
한자어 음절 끝 ‘ㄹ’ 뒤에 오는 자음의 경음화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쌈], 발전 → [발쩡]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자음의 경음화	예) 할 것을 → [할꺼쑤], 갈 곳 → [갈꼐]

## 3. 탈락

어떤 음운 환경에서 원래 있었던 음운이 없어서 소리나지 않는 현상

### (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앞의 것이 소리 나는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 ㅃ	예) 낫 → [넛], 앓다 → [안따], 끊는다 → [끈는다], 외곶 → [외곶], 할다 → [할따], 값 → [갑]
뒤의 것이 소리 나는 겹받침	ㄹ, ㄹ	예) 젊다 → [점:따], 읊다 → [읍따]

### •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

순행 동화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화 예) 달님 → [달림]
역행 동화	뒤 음운이 앞 음운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화 예) 권력 → [궐력]

### • 모음 동화

후설 모음 ‘ㅏ, ㅑ, ㅓ, ㅕ’가 뒤에 오는 전설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ㅘ, ㅙ, ㅛ, ㅜ’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ㅣ’ 모음 역행 동화라고도 함. 이와 같이 변한 발음은 ‘냄비, 멋쟁이, (불을) 땀기다’처럼 표준어가 된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아기 → [애기], 어머니 → [애미], 고기 → [괴기], 죽이다 → [주기다] → [취기다]

### • 된소리되기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음운 환경이라도 어근에 사동이나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실현되지 않음.

예) 안기대[안기다], 숨기대[숨기다]

### • 예외가 있는 겹받침의 발음

‘ㄹ’	대부분 [ㄱ]으로 발음되지만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됨. 예) 맑지[막찌], 맑고[말꼬]
‘ㄹ’	대부분 [ㄹ]로 발음되지만 ‘ㅂ+자음’의 경우에는 [ㅂ]으로 발음됨. ‘넙죽하다’와 ‘넙둥글다’의 ‘ㄹ’도 [ㅂ]으로 발음됨.

**(2) 자음 탈락**

- ① ‘ㄹ’ 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 ㅅ’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예 놀-+-니 → [노:니], 살-+-시-+-고 → [사:시고]
- ②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 예 낳-+-아 → [나아], 좋-+-아 → [조:아]

**(3) 모음 탈락**

- ① ‘ㅡ’ 탈락: 어간 말의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예 크-+-어서 → [커서], 아프-+-아 → [아파]
- ②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 예 가-+-아서 → [가서], 서-+-어라 → [서라]

**4. 첨가**

일정한 환경에서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

**(1) ‘ㄴ’ 첨가**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되는 현상
- 예 맨+입 → [맨닙], 숨+이불 → [숨:니불], 교육+열 → [교:용넬]

**(2) 반모음 첨가**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ㅣ’가 덧나는 현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님.
- 예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어/되여]

**5.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1) 거센소리되기(격음화, 자음 축약)**

‘ㅎ’이 ‘ㅂ, ㄷ, ㄱ, ㅅ’과 결합하여 각각 ‘ㅍ, ㅌ, ㅋ,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ㅂ, ㄷ, ㅅ → ㅍ, ㅌ, ㅈ	예 좋고 → [조:코], 놓다 → [노타], 쌓지 → [싸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먹히다 → [머키다],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잡히다 → [자피다], 젓히다 → [저치다]

**• ‘ㄹ’이 탈락된 단어**

이미 중세 국어 시기부터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된 형태가 있었고, 이 형태가 굳어져 현대 국어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음.

- 예 솔+나무 → [소나무], 달+달+-이 → [다다리], 불+삼 → [부삼], 바늘+-질 → [바느질]

**• ‘ㄴ’ 첨가 현상의 발생 조건**

‘ㄴ’ 첨가 현상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혹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서 만들어짐. 하지만 ‘ㄴ’ 첨가는 항상 일어나는 필수 현상은 아님. ‘ㄴ’ 첨가가 일어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예 검열(檢閱)[검:넬/거:넬], 6·25[유기오]

**• 반모음 첨가와 표준 발음**

표준 발음법 제22항은 ‘ㅣ’와 ‘ㅚ/ㅟ’ 발음 어간에 대해서만 반모음 ‘ㅣ’ 첨가가 일어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함. 하지만 이를 표기에 적용하는 것까지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내신 대비 문제

## 개념 확인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탈락 현상에, 자음군 단순화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
  - 비음화와 유음화는 한 자음이 다른 자음과 같거나 유사하게 발음되는 현상이다. ( )
- 알맞은 내용에 ○표를 하시오.
- '눈'과 '요기'가 결합된 '눈요기'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교체 / 첨가) 현상이라고 한다.
  - 된소리되기는 (교체 / 축약) 현상에 해당하고, 거센소리되기는 (교체 /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정답: ① × ② ○ ③ 첨가 ④ 교체, 축약

## 1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동생은 옷 안에 과자를 감추고 있었다.
- ㄴ. 호수의 물은 맑아 바닥까지 훤히 보였다.
- ㄷ. 장엄하고 화려한 해돋이 의식이 시작되었다.
- ㄹ. 인간은 오래전부터 달나라에 가고 싶어했다.
- ㅁ.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좋게 해석하려고 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 2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서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의 예: ( ㉠ )
- 'ㄴ'이 인접해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서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의 예: ( ㉡ )

- |             |            |
|-------------|------------|
| ㉠           | ㉡          |
| ① 백로[백노]    | 한낫[한난]     |
| ② 한라산[할:라산] | 섭리[섭니]     |
| ③ 국밥[국뻬]    | 설날[설:랄]    |
| ④ 잡는다[잠는다]  | 순례[술레]     |
| ⑤ 흙냄새[흥냄새]  | 곧이듣다[고지듣따] |

## 3 <보기>의 밑줄 친 말 중,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 우리는 강을 건너서 바다로 나아갔다.
- ㉡ 참기 인원이 주니 경기장이 썰렁했다.
- ㉢ 그들은 인솔자를 따라 공장을 견학했다.
- ㉣ 점심에 먹을 음식을 접시 위에 놓아 두었다.

	자음 탈락	모음 탈락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4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합성어 '발이랑'은 먼저 '발'과 '이랑'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ㅣ' 앞에 'ㄴ'이 첨가됩니다. 한편 '발'의 'ㅌ'은 'ㄷ'으로 발음되는데,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ㄷ'은 'ㄴ'으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결국 '발이랑'은 [반니랑]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이 모두 일어난 말을 찾아 볼까요?

- ① 겉잎                      ② 굳세다                      ③ 앞마당  
 ④ 급행열차                ⑤ 서른여덟

## 5 <보기>의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밭지[박찌]                      ㉡ 앓아[아나]
- ㉢ 식용유[시공뉴]                ㉣ 걷히다[거치다]
- ㉤ 늦어름[느너름]

- ① ㉠: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후에 첨가가 일어났군.  
 ② ㉡: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 후에 교체가 일어났군.  
 ③ ㉢: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후에 첨가가 일어났군.  
 ④ ㉣: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 후에 교체가 일어났군.  
 ⑤ ㉤: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 후에 탈락이 일어났군.

# 수능 대비 문제

## 기출 대표 문항

### 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꺄	-	ㅍ
중모음	ㅔ	ㅚ	ㅓ	ㅜ
저모음	ㅙ		ㅑ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중요

### 2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옹지 → [옹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으꼬름]
-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깊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받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ㅁ’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화]’, ‘종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ㅌ,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ㅌ,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빻]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곤잘[곤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담기[담: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깁] 모양이다.

- ①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5** | 고년도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꿈, 어찌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딱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딱’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딱]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실전 대비 평가

1 <보기>의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여 '음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불'과 '굴', '말'과 '물', '장'과 '잠'은 각각 다른 단어이다.  
 나.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의 '눈'은 길게 발음하고, '소녀의 눈이 예쁘다.'의 '눈'은 짧게 발음한다.

- ① 음운은 문자의 표기를 통해 구별할 수 있군.
- ② 음운은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발음할 수 있군.
- ③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음운은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군.
- ⑤ 음운은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을 구성하는군.

중요

2 <보기>의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단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조음 방법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종로[중노]'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군.
- ② '국물[궁물]'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군.
- ③ '같이[가치]'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군.
- ④ '난로[날:로]'는 조음 방법은 그대로이고, 조음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군.
- ⑤ '미달이[미:다지]'는 조음 방법은 그대로이고, 조음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군.

3 <보기>를 참고하여 각 음절의 단모음에서 발음 방법을 조인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혀의 높낮이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ㅔ	ㅝ	ㅓ	ㅛ
저모음	ㅙ		ㅑ	

- ① '너'를 발음할 때에는 '나'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여 발음해야 해.
- ② '회'를 발음할 때에는 '호'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를 더 낮추어 발음해야 해.
- ③ '매'를 발음할 때에는 '매'를 발음할 때와 달리 입술의 모양을 평평하게 하여 발음해야 해.
- ④ '기'를 발음할 때에는 '구'를 발음할 때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 ⑤ '그'를 발음할 때에는 '귀'를 발음할 때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4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음운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 단어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색연필 → [색년필] → [생년필]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5** <보기>의 ㉠과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짝지은 것은?

**보기**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동화는 뒤 음운이 앞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순행 동화와 앞 음운이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단는[단는]   | 겹말[겹말]   |
| ② 설날[설:랄]  | 쪽문[쪽문]   |
| ③ 선량[설:량]  | 강릉[강릉]   |
| ④ 천리[철리]   | 곤란[골:란]  |
| ⑤ 실내화[실래화] | 불나방[불라방] |

**6**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보기**  
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므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나. 파열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            |            |
|------------|------------|
| ① 섭리[섭니]   | ② 막일[망닐]   |
| ③ 녀두리[넉뚜리] | ④ 부엌문[부엌문] |
| ⑤ 꽃다발[꼇따발] |            |

**7** <보기>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넓지[넛찌]                      ㉡ 줄넘기[줄림끼]  
㉢ 살살이[산싸치]                ㉣ 낮익다[난익따]  
㉤ 값나가다[감나가다]

- ① ㉠과 ㉤은 탈락, ㉢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과 ㉣은 교체 후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은 음운 변동 현상이 세 번, ㉣은 네 번 일어난다.
- ④ ㉠~㉤ 모두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모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끼리 묶인 것은?

**보기**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간의 끝 'ㅎ' 뒤에 평음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나,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이며 'ㅎ'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이 평음과 곧바로 합쳐져 거센소리가 된다.  
그러나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어간의 끝 'ㅎ'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나,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 |           |           |
|-----------|-----------|
| ① 앓다, 잃어  | ② 좋아, 많고  |
| ③ 빵는, 넓혀  | ④ 좋다, 앓히다 |
| ⑤ 넓히다, 쌓소 |           |

**9** <보기>의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굶다[극따], 읊다[읍따]  
㉡ 날일[날릴], 불여우[불려우]  
㉢ 걸잎[건닙], 늦여름[느녀름]

- ① 교체 유형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③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다.
- ④ 음절 끝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앞 자음의 영향으로 뒤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대개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반모음화는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선행하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단모음이 '반모음+단모음'의 구성으로 된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반모음화는 반모음인 'ㄹ' 및 'ㅇ/ㅍ'와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반모음 'ㄹ'로 바뀌는 반모음화는 단모음 'ㄹ'에, 반모음 'ㅇ/ㅍ'로 바뀌는 반모음화는 단모음 'ㅇ', 'ㅍ'에 적용된다. 현대 국어의 반모음화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주로 나타나지만, 이런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음운 현상으로, 이를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반모음 첨가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모음 탈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이 발음상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 단모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모음 탈락은 탈락하는 모음 및 적용 환경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간 말의 'ㄹ'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ㄹ' 탈락이 있다. 또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이 있다.

이처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고난도]

10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거북이가 바닷가를 기-+-어[기어/기여/겨:] 다녔다.
  - ㉡ 포도가 생각보다 시-+-어[시어/시여/셔:] 먹기 힘들다.
- ㉠의 '기-+-어'와 ㉡의 '시-+-어'는 각각 세 가지로 발음되는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①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군.
- ②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동일 모음이 탈락하는군.
- ③ 반모음 'ㅇ/ㅍ'로 바뀌는 반모음화가 단모음 'ㅇ', 'ㅍ'에 적용되었군.
- ④ 모음 탈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군.
- ⑤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이중 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군.

중요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탐구 학습 과제>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탐구해 봅시다.

- ㉠ 바꾸-+-어 → 바뀌[바뀌]
- ㉡ 쓰-+-어 → 씨[씨]
- ㉢ 꼬-+-아 → 꺾[꺾:]
- ㉣ 살피-+-어 → 살피어[살피여]
- ㉤ 나서-+-어 → 나서[나서]

- ① ㉠: 음운의 첨가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어요.
- ② ㉡: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어요.
- ③ ㉢: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 ④ ㉣: 음운의 첨가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 ⑤ ㉤: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